

민주 광주·전남 경선 시작 지역발전 공약경쟁 펼쳐야

4·15 총선 D-49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들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가 속에 후보 간 네거티브 선거로 얼룩지고 있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3당은 통합에 '올인'하면서 정작 지역발전을 이룰 공약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2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6일부터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광주·전남 선거구에 대한 경선에 본격 돌입한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3당은 최근 민생당으로 통합하면서 광주·전남지역구에서 민주당과 한판 승부를 버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지역 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정당 지지율에 비해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로 경선을 준비하다 보니, 후보 간 고소·고발이 빗발치는 등 혼탁 경선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선 과정에 지역 현안을 담은 정책과 공약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제출한 지역현안 사업과 건의사업 등을 이날 제출받아 지역 총선 공약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후보들 "경선이 본선" 비방·고소·고발 난무 '혼탁' 민생당 통합 '올인' 공약 뒷전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광주·전남도와 총선 지역 공약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주요 지역 현안사업 등을 민주당 총선 공약 예비 사업과 계획 등을 시·도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총선 공약 1호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습니다'를 시작으로 ▲여성폭력 OUT!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4대 제조강국 혁신성장으로 이룩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1등 국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정년신혼 맞춤형 도시 10만호 공급 등의 중앙당 차원의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국 사·도당이 취합한 지역 공약을 곁들여 총선 전체 공약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지역 공약 발굴에 나서면서 끊이지 않았던 후보 간 네거티브도 다소 잦아들 전망이다.

실제, 그동안 민주당의 당내 경선은 공약과 정책은 사라지고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한 진흙탕 싸움이었다. 광주지역 한 민주당 경선 주자는 8건의 고소·고발을 당

했고, 대다수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상대를 비방하는 성명과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 과정에 신천지는란이 일면서 '상대 후보와 신천지의 관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상대방 깎아 내리기에 몰두하는 사이, 이 지역 현안 사업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나 이용빈 광주 광산구갑 예비후보와 민형배 광산구를 예비후보가 공동으로 중앙당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광주·전남지역 총선공약으로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정작 중요한 전남 지역구의 예비후보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민주당 내 정치권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전혀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도가 제출한 지역 현안사업 등에는 이 지역의 미래도와 전략과제가 담겨 있고, 이를 민주당의 공약에 포함해 당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면서 "공약이 구체화하면 이 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공약·정책 선거'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광민 기자 cki@kwangju.co.kr

/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구 간 대통령 "바이러스와 싸움 반드시 승리"

범국가적 총력지원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를 방문,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과 지역 외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문제는 시간과 속도다.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

희 대구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고 민간 의료인력의 지원을 포함해 범국가적 총력지원 체계를 가동했다"며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당정청 회의에서 "대구·경북에 대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

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국 국민들도 '힘내십시오, 함께 극복합시다'라는 응원 메시지가 보내고 있고, 광주와 전남을 필두로 전국 각지에서 방역물품과 생필품을 보내며 온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통합은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과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달라.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방역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권 시장 등으로부터 방역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범정부 지원방안에 함께 논의했다.

/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25일 광주시 서구 회정동 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밀폐실험실에서 연구원이 광주지역 코로나 19 의심자로부터 받은 검체를 고병원성 바이러스 연구실로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이틀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

광주 110명·전남 65명 격리 대구·경북 등 확산세 여전히

광주·전남에선 이틀동안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대구·경북과 신천지 신도들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히 거세다.

〈관련기사 2·3·4·5·6·7·14면〉

이에 따라 정부는 광주·전남 5만여명 등 전국 21만여명의 신천지 신도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하기로 했으며, 신천지 신도에 대해선 조사 전까지 증상 여부와 관계 없이 외출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이날 하룻동안 총 144명의 코로나19 신규환자가 발생했으며, 국내 확진자는 총 977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대구는 543명, 경북은 248명이다.

이날 사망자도 2명이 추가 발생해 총 11명으로 늘었다. 10번째 사망자는 58세 남성으로 청도대남병원 관련 확진자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조사 중이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돼 명지병원서 치료를 받던 몽골인이 11번째로 사망했다. 외국인으로는 국내 첫 사망사례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광주·전남에선 24일에 이어 이틀 연속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확진판정을 받고 조선대학교 병원(4명), 전남대학교 병원(3명) 국가 지정 음압 병동에 입원 중인 신천지 관련 확진 환자 7명의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는 이틀 확진자를 제외한 110명을 확진환자와 접촉 여부에 따라 자가 격리 또는 능동 감시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전남에선 확진자가 발생한 '사학 혁신 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사립학교 관계자 65명이 이날 자가격리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참석자가 소속된 학교도 이날 정오부터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했다. 광주에서는 사립학교 관계자 1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므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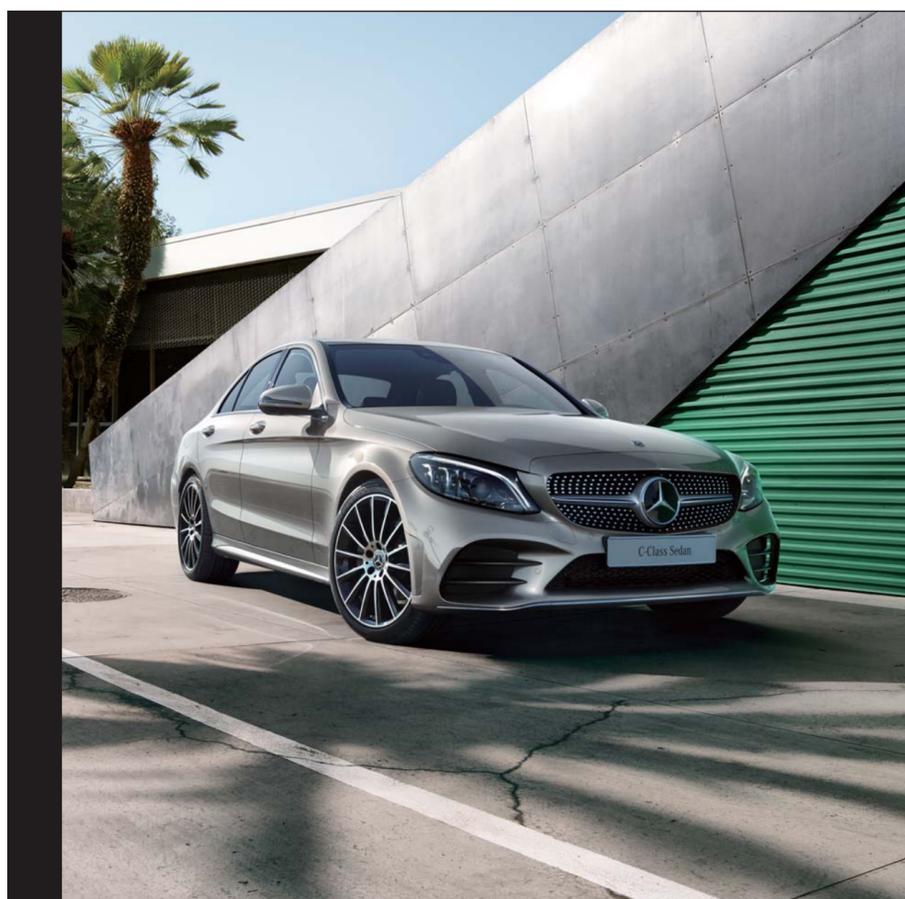
지역사회에선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결의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난극복은 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면서 "감염병과 같은 재난은 특정 지역의 탓도, 개인의 문제도 아니기에 우리는 대구·경북 주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이날 1913송정역시장 상가 건물주 25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담아 이번 달부터 4개월간 10~25%내에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심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